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신학기 안내/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6 교육과 스승
- 07 교육과 공동체
- 08 학위취득자 명단

학사 일정

3월

- 1(일) 삼일절(공휴일)
- 2(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 2(화)~5(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2021년 4월 시행)
- 2(화)~5(금) 2021학년도 1학기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 2(화)~5(금)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방식 신청 및 변경(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 2(화)~5(금) 2021학년도 1학기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 5학기생)
- 2(화)~4.9(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 5(금)~9(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 15(월)~19(금)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4월

- 1(목)~30(금)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 9(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 면제 신청 마감
- 9(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 시행
- 12(월)~19(월) 2021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 12(월)~21(수)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 20(화)~5.3(월)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 30(금) 2021학년도 1학기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창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1년 3월 5일(금)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4호(월간)

■ 초점

새로운 시대 요람으로서의 유아교육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년여 넘게 유아교육계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퇴직 후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는 김정례입니다. 교육신문을 통해 여러분을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교수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초대 유아교육과장으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재직 중 추진하셨던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체결은 무엇을 목표로 했나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유아교육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체제 정비와 체계적인 유아교육 현장 교육지원을 위해 유아교육과가 2015년 3월 설립되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초등교육과에서 분리하고 유아교육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 많은 정책을 펼치며 현장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이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유치원 체결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았습니다. 유아교육은 국가 행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익성,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경기도교육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소통 방식으로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투명사회협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변화를 담보하며 합리적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아가 관련 기관이 함께 소통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려 추진되었습니다.

■ 회장직을 지내셨던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한유행)는 2004년 4월 경남유아교육원에서 48인의 전국 국·공립 유아교육행정이 대표들의 발기로 창립하고 전국 16개 시도지회를 조직하였습니다. 한유행은 유아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여 회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한국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3대 회장으로 선임



김정례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심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돌봄 공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돌봄 공백'이 어느 때보다도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유아교육기관은 기관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아교육은 한 세대 후, 유아들이 성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를 예측해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AI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늠해 보며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교직원 역시 인성을 고루 갖춘 전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인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 아닐까 합니다. 유아교육에서는 유아교육의 본질 회복에 노력하고 유아들이 마음껏 놀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물적, 인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실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되어 4년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유행은 대한민국 공립유치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의 삶을 책임지고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학교교육으로써 유아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유아교육 정책 실현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바람직한 유아교육 환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아교육 환경이 바람직하게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이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물리적 환경으로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생각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유아교육 기관과의 일관성 있는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아들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반응하며 성장합니다. 따라서 유아의 생활 환경에 있는 사회사의 환경 조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인적 환경 또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교사, 유아 주변의 어른들 역시 중요한 인적자원이자 환경입니다. 따라서 유아들을 전인(全人)으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애정, 신뢰감, 안정감, 소속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나 교사가 심적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 또한 어린이들을 관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습 결손, 학력 격차, 돌봄 공백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역경을 겪으며 불안, 분노, 무기력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는 회복력의 차이라고 하는데, 회복력이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자 심리적 근육을 키워 더 성장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두 심리적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수학 경험을 바탕으로 비전을 만들고, 스스로 창조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 제21기 교육경영 AMP (구 교육경영 최고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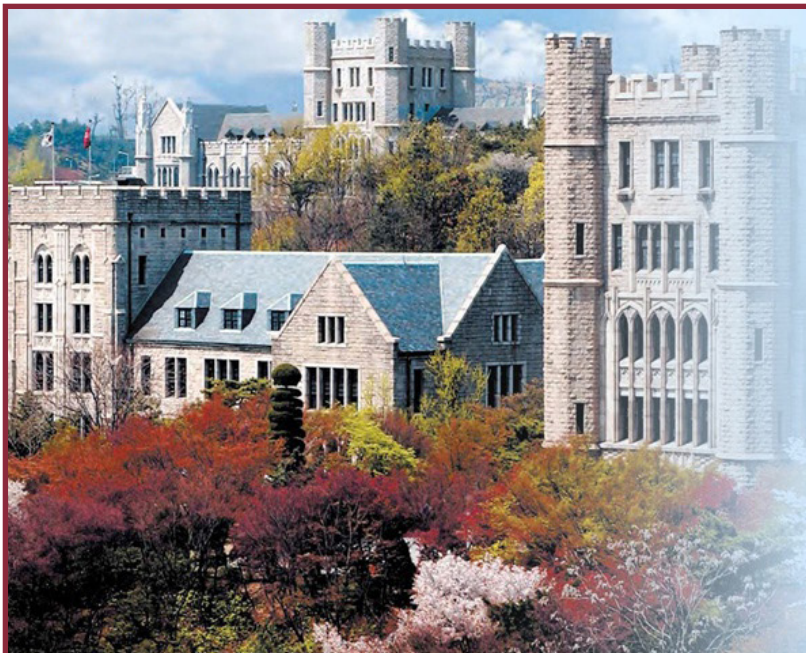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응시자격 :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 관련 기업대표 및 임직원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교육경영분야에 관심있는 분)
- 모집일정 : 2021년 1월 1일(금) ~ 정원 충족 시 마감
- 교육안내 : ● 교육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말까지(1년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등록금 : 450만원(1학기)

▶ 과정특전

- 고려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원 자격 부여 등

▶ 접수방법 : 입학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를 작성 후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 문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0,1373)



2021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



지난 2월 18일(목) 오후 2시 2021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입학식에 앞서 관련 자료가 담긴 링크가 입학생 전원에게 전송되었으며, 각 개인은 이 링크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공유된 자료에는 입학식

사, 전공 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 학사안내, 교직원안내, 성평등교육, 총학생회 제작 오리엔테이션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입학식사 영상에서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은 “변화의 시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찾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라며,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여러분의 큰 꿈을 이루기를 기원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전공 주임교수 및 교수진 소개 자료에는 각 학과의 전공 주임교수 및 교수진의 학력사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다. 학사안내 자료에는 수업 및 성적, 학적 및 졸업, 장학 및 학생증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교직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및 이수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성평등교육 자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설명, 이와 관련된 고려대학교의 규정, 사건 예방법 및 대처법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상기 자료는 3월 21일(일)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되며 필요한 자료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수료식



지난 2월 22일(월) 오전 11시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20기 교육경영 AMP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을 비롯해 박종훈 부원장, 교육경영 AMP 김한우 교우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양채진 담임이 진행을 맡았다.

현장에는 20기 수료생 41명 중 36명의 원우가 참석하였으며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수료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교육대학원장과 수료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수료증과 자격패를 원생들이 직접 단상에서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어서 공로패와 표창장 수여 그리고 내외빈의 수료식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은 이날 수료식사에서 “지난 1년간 고려대학교의 원우로 함께 지내며 많은 경험을 하고 멋진 동기와 선배 원우들을 얻었길 바란다.”라며 “이러한 경험이 현재와 미래에도 큰 성공의 발판이 되리라 믿으며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라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한우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20기 원우들은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정점에서 어렵게 입학하였음에도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기에 대단한 기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교우회 입성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좋은 기운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답사를 한 20기 수료생 대표 유준철 원우는 “고대 교우회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20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은 마음을 모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행사는 정태구 원장의 기부증서 전달식과 양채진 담임의 폐회사로 막을 내렸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daum.net

2021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계획 안내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학기 학사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와 같이 정부의 방역 수칙에 연동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2.5단계에서는 실시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적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일부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실 수업을 진행하되,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나머지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중계가 불가능한 경우 강의 상황을 녹화·녹음한 자료를 강의 시간 후에 탑재하거나 대면 수업 없이 실시간 온라인 강의만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실험 실습 및 실기 수업도 기본 원칙 준수를 권장하지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수업의 성격상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수강 신청 이전에 고지하거나 수강생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강생 인원이 10명 내외인 경우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강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녹화 강의는 보강 및 시험 기간 중 실시되는 강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녹화 강의는 강의 시간 이전에 업로드 되어야 하며, 이번 학기에 새로 녹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 방식 또한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1~2.5단계에서는 대면 시험이 원칙이지만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대체도 가능하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대면 시험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수업 및 성적 평가의 방식은 2월 19일(금) 수강 신청 전에 각 교과목 강의 계획안을 통해 공지된 바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

3월 15일(월) 오전 11시부터 19일(금) 오후 5시까지 본교 포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및 신입생이며 정규 학기(5학기) 재학 중인 원생으로 제한된다.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생은 이번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장학금 수혜 금액이 수업료의 25% 미만인 원생(기수혜자)에 한함은 등록금 분납 신청 및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 그리고 복지장학금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장학금은 성적우수자 및 가사곤란자 중 신입생을 제외한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학기에 연구지도 학점을 제외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원생에 한해 지급된다. 단,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휴학 이전 학기의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성적 및 면학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사유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별장학금은 외국인 장학금, 현직 교원 및 공무원 학비 감면, 리더십 장학금으로 나뉜다. 첫째, 외국인 장학금은 입학 당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정원 외로 입학한 원생에게 지급된다. 둘째, 현직 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학비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교육청 인가 유치원·초·중·고 교육기관의 정규 교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리더십 장학금은 전공별 대표에게 지급된다.

본교 교직원 또한 복지장학금 제도에 따라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본교 교직원 및 자체, 그리고 본교 법인 및 부속병원의 직원 및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grad.korea.ac.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대학원 행정실 장학 담당자에게 전화(02-3290-1370/1379) 문의할 수 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daum.net

2020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



지난 2월 25일(목) 오후 17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0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된 영상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위수여식 영상 링크는 학위수여 예정자에게 SMS로 개별 발송되었다. 수여식은 박종훈 부원장의 진행 하에 석사학위 수여자 발표, 학위증서 대표 수여, 우수졸업자 발표, 우수논문

상 수상자 발표, 성적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 전공별 성적우수상 발표, 학위수여식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수여식사 영상은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이 22일(월) 윤초우선교육관 203호 강당에서 사전 녹화하였다. 정태구 원장은 “졸업은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성장한 고향과 집을 떠나는 것과 같다.”라며,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고려대학교에서의 배움을 사회와 세계를 위해 멋지게 발휘하

시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학위증서와 교원자격증 및 졸업사진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방문수령하는 방식으로 배부되었다. 등기우편 발송은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제도이다. 우수졸업자 상패는 파손 위험으로 우편 발송이 불가하여 방문수령만 가능하였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24개 전공에서 총 142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문성지(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이학선(체육교육전공) △공로상 경규희(상담심리교육전공) △우수논문상 전예림(상담심리교육전공) 외 9명 △성적 최우수상 김규원(미술교육전공) 외 19명 △성적 우수상 국어교육전공 하다인 외 17명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일정 안내

지난 1월 14일(목) 2021학년도 등록금 납부 일정이 공지되었다. 학생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재학생 정규 등록 일정(2월 19~25일)의 재학생은 재입학생과 복학생 등을 포함한

다. 등록 일정은 학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등록금 일정 안내〉

2020년 12월	28(월) - 30(수) 16:00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등록
2021년 01월	01(금) - 05(화) 16:00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06(수) - 08(금) 16:00	2021학년도 1학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 등록
	20(수) - 22(금) 16:00	2021학년도 1학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신입생 미등록 총원 등록
02월	08(월) - 10(수) 16:00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정시) 등록
	08(월) - 10(수) 16:00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수시) 차액 등록(예정)
	08(월) - 10(수) 16:00	2021학년도 학부 편입생 등록(예정)
	15(월) - 18(목) 21:00	2021학년도 학부 신입생(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19(금) - 24(수) 16:00	2021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온라인 신청
	19(금) - 25(목) 16:00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정규 등록
03월	02(화) - 04(목) 16:00	2021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1차 등록
	02(화) - 10(수) 12:00	2021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 신청
	11(목) - 15(월) 16:00	2021학년도 재학생 추가(최종) 등록
	11(목) - 15(월) 16:00	2021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 등록
04월	01(목) - 05(월) 16:00	2021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2차 등록
05월	03(월) - 06(목) 16:00	2021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3차 등록
	20(목) - 21(금) 16:00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 등록(예정)
06월	01(화) - 03(목) 16:00	2021학년도 1학기 분할납부 4차 등록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 일정 안내

〈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학사 일정표〉

월	일	요일	학사 내용
1	1	금	신정(공휴일)
	4~6	월~수	완제본 논문 접수
2	1~17	월~수	2021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1~25	월~목	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11~13	목~토	설날(공휴일)
	18	목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식
	19~23	금~화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9~25	금~목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22~26	월~금	기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25	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5	목	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만료
3	1	월	삼일절(공휴일)
	2	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2~5	화~금	1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2021년 4월 시행)
	2~5	화~금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2~5	화~금	학위청구방식 신청 및 변경 (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2~5	화~금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 5학기생)
	2~4.9	화~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5~9	금~화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15~19	월~금	1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1~30	목~금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4	9	금	1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 면제 신청 마감
	9	금	1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12~19	월~월	2021학년도 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2~21	월~수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20~5.3	화~월	1학기 중간고사
5	30	금	1학기 종합시험(4월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4~7	화~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5	수	개교기념일 어린이 날(공휴일)
	12~6.11	수~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19	수	부처님오신날(공휴일)
6	22	토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6	일	현충일(공휴일)
	11	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11	금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8~21	화~월	1학기 기말고사
	22	화	여름방학 시작
7	30~7.2	수~금	1학기 완제본 논문 접수
	2	금	1학기 완제본 논문 접수 마감
8	2~17	월~화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2~25	월~수	2021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15	일	광복절(공휴일)
	19	목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식
	20~25	금~수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월	일	요일	학사 내용
8	20~27	금~금	2021학년도 2학기 등록
	23~27	월~금	기수료자 연구지도비 납부
	25	수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예정)
	25	수	2021학년도 2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만료
9	1	수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1~6	수~월	2학기 종합시험 인터넷 접수(2021년 10월 시행)
	1~6	수~월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1~6	수~월	학위청구방식 신청기간 (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
	1~6	수~월	유사전공과목 신청기간(4,5학기생)
	1~10.8	수~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10	3~8	금~수	2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9~15	목~수	2학기 장학금 및 학비감면 신청
	17~18	금~토	정기 고연전(예정)
	20~22	월~수	추석(공휴일)
	1~29	금~금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3	일	개천절(공휴일)
11	8	금	2학기 종합시험 교직/외국어면제 신청 마감
	8	금	2학기 종합시험 시행(예정)
	9	토	한글날(공휴일)
	11~18	월~월	2022학년도 전기 입학원서 접수(예정)
	11~20	월~수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제출서류 접수(예정)
	20~26	수~화	2학기 중간고사 [2주 진행 사: 10/20(수) ~ 11/2(화)]
12	29	금	2학기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2~4	화~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10~12.10	수~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27	토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10	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15~21	수~화	2학기 기말고사 [2주 진행 사: 12/8(수) ~ 12/21(화)]
22. 1	17	금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22	수	겨울방학 시작
	25	토	성탄절(공휴일)
	1	토	신정(공휴일)
	3~5	월~수	2학기 완제본 논문 접수
	31	월	설날(공휴일)
22. 2	1~2	화~수	설날(공휴일)
	3~17	목~목	2022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기간
	3~25	목~금	2022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17	목	2022학년도 전기 입학식
	18~23	금~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18~25	금~금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25	25	금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예정)
	25	금	2022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 기간 만료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화) 2021학년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학기 주요 학사 일정은 옆의 표와 같다.

3월 2일(화) 개강과 함께 3월 5일(금)까지 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이 이루어진다. 1학기 기준 3학기 재학생은 전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3학기에 지도교수 신청을 완료한 4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일반 수료생, 특별 입학생 가운데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원생은 지도교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3학기 재학생은 이 기간 동안 석사과정 학위청구방식(논문중심과정, 학점중심과정)도 신청해야 한다. 3학기에 학위청구방식을 신청한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학위청구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원생은 학위청구방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위청구방식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수료생의 경우 학위청구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

3월 15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는 2021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학비 감면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장학금 신청은 고려대학교 포털(http://portal.korea.ac.kr)의 ‘등록/장학’ 메뉴 중 ‘교육대학원 장학금 신청’에 접속하여 장학금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본 교육대학원의 모든 장학금 및 학비 감면은 서류 검토, 전공 주임 교수의 장학금 수혜자 선정 과정을 거쳐 사후 지급된다. 결과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되며 장학금은 학적부에 기재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1학기 종합시험은 4월 9일(금) 오후 6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시행되며, 합격자는 4월 30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종합시험에 이어 4월 20일(화)부터 5월 3일(월)까지 2주간 1학기 중간고사가 실시된다.

5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는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논문 제출 자격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이번 학기 이수 예정자 포함)하고, 종합시험(교직, 전공, 외국어)에 합격한 자이다.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에는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 신청 및 제출 승인서 △석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심사 사용 논문 3부가 필요하다.

6월 8일(화)부터 21일(월)까지 2주간 1학기 기말고사가 진행된다. 이후 22일(화)부터는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방학 동안에도 다양한 학사 관련 신청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월 2일(월)부터 25일(수)까지는 2021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휴·복학 신청 기간이다. 일반 휴·복학은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포털(http://portal.korea.ac.kr)의 ‘학적/졸업’ 메뉴 가운데 ‘휴·복학 신청’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입력하면 된다. 출산·육아 휴학, 자격·연수 휴학, 군 입대 휴학 및 군 제대 복학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상에 증빙 서류(사본)를 첨부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휴학 신청서, 복학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를 증빙 서류(사본)와 함께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1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은 8월 20일(금)부터 8월 25일(수)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1학년도 2학기 등록은 8월 20일(금)부터 8월 27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여 신청 및 제출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인텔과 AI 진로 교육 관련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와 ㈜인텔코리아(이하 ㈜인텔)는 지난 2월 2일(화), 인공지능(AI)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자리를 비롯한 인간의 삶 전반에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인공지능과의 소통 및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바탕을 이루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텔의 풍부한 물적·인적 기반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야 할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주신 ㈜인텔코리아에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의 소통 능력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텔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진로특강, 대담 등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관련 진로 직업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인공지능 진로체험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지원된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거나 ㈜인텔 사업장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개발 모형 ‘인텔@ AI For Youth’ 진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연수도 지원한다. 이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진로체험을 돕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직업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인텔은 인공지능 기초 기술의 이해를 돕고 ‘AI Project Cycle’에 따른 소셜임팩트 창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온라인 자기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인텔과 교육부는 인공지능 진로 교육을 위한 공간혁신 모델(AI Lab)을 구축하고 일대일 맞춤형 컴퓨터 환경과 원격수업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연계 협력학교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일대일 컴퓨터 환경 및 Intel@EMA(원격 관리 기술)를 활용한 창의적 협력 활동, 지속적인 인공지능 프로젝트 결과 테스트, 인공지능 프로젝트 쇼케이스를 고려한 ‘AI Lab’을 구축하고 운영 사례를 개발·보급할 전망이다.

권명숙 ㈜인텔 대표이사사는 “교육부의 진로 교육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여 학생들의 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돕고,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daum.net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수)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지난해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 운영 방안과 시범 운영 학교 선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마이스터대단 소속전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 학사·전공 심화(학사)·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5개의 시범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마이스터대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평가 점수가 높은 총 5개교(수도권 2교, 비수도권 3교)를 시범 운영 대학으로 선정하며, 학교당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1차 연도에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교수학습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 등 학생 선발에 앞서 교육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고, 단기 직무 과정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어 2차 연도에는 신규 학생을 선발하고 마이스터대 전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부터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까지)을 운영하여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다.

마이스터대 시범 운영 대학의 세부 운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고도화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문 학사와 전공 심화 과정(학사)을 개선하고, 단기 직무 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해당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이다.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문가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를 교원의 60%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추어 실습 기기와 실습실을 마련하고, 재직자 학생 등을 위한 행정·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유연한 학사제도의 활용이다. 성인 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을 위해 선행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지역의 협력 강화이다. 참여 대학과 지역 산업체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취창업을 연계하여 전문 인재 양성과 유망의 선순환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형이므로, 시범 운영을 통해 우수 모형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5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월 17일(수)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다. 고교학점제는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담임제 등 학급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은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책연구, 연구기관 간 협업,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고,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또한, 학생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그간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 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일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며,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이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취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울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학문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사회과 지리 수업에의 적용



홍서영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겸임교수

다. 수업은 인간의 경험을 다루는 장(場)이며, 학생과 교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는 곳이기 때문에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이 가장 강력하고 생생하게 발생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실에서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지식의 강력한 전달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리 수업은 인간 삶의 터전이 되는 지표의 여러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지표 위 다양한 삶과 환경을 소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지리 수업은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탈맥락적인 지식의 일방적 전달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며 나아가 '지리' 과목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견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지리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정의적 측면의 변화 모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순차적 설명 설계의 방법을 선택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의 의미를 탐색하고 내러티브 사고 양식을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내러티브는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나 대개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행위라고 종합할 수 있다. Bruner가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과의 대비를 통해 내러티브 사고 양식의 특징을 제시한 이후 내러티브 사고 양식이 추구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가 일어났다. 패러다임적 사고 양식 하의 교육은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의 정해진 방법

만을 인정하였지만,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참된 진실의 추구보다는 그럴법한 스토리 혹은 진실과 같은 스토리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내러티브와 스토리, 스토리텔링 간의 개념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교과교육에서 내러티브는 흔히 스토리 혹은 스토리텔링과 혼용되며 명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가 그것의 표현 및 발화 형태인 담론과 결합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스토리가 담론의 형태 중 발화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을 때를 스토리텔링이라 규정하였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최근 미디어 기기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며, 사진 및 동영상 재료를 하여 자신의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의 한 영역을 의미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최근 에듀테크 활용 증대 및 학습자 주도 상호작용이 강조된 수업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지리 교육에 적용되었을 때 도출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지리 교육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장소 및 지역 지리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도 지리적 상상력과 학습 동기를 증대시킬 수 있다. 위성사진 등 미디어 기기를 통한 다양한 시각적 자료 체험은 학생들의 지리적 문제력을 향상할 것이다. 또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통한 광범위한 의사소통은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게 하며,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

킨다.

넷째, 이러한 문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I 초등학교와 N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36명(각 학교 3학급, 총 6개 학급)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형과 우리 생활' 단원을 바탕으로 4차시의 수업을 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하였다. 통제군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였고, 실험군인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급의 수업은 1차시 수업을 교사의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2~4차시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글 또는 디지털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업의 사전과 사후에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학습 동기 검사지의 내용을 통계 분석하여 수업 전후 변화 모습을 탐색했다. 이와 같은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수업 집단별 대표성을 가진 I 초등학교와 N 초등학교의 학생 각 9명, 총 18명을 대상으로 1회의 개별 면담과 1회의 집단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장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은 강의식 수업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샘플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한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에 투입된 학생들이 수업에 가장 흥미를 느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디지털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의 회상이 용이해졌음을 언급했기에, 실생활 맥락적 내용

제시 및 문제 해결이 회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넷째, 학생들이 디지털 스토리 제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메타인지를 개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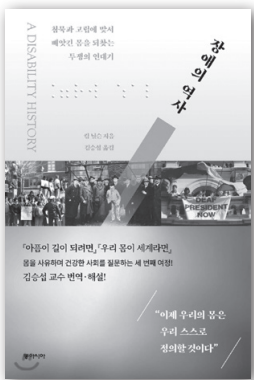
스토리 및 디지털 스토리를 구성하여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교실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사회과 지리 수업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탈맥락적인 강의식 수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은 학습자 주도로 스토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문제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력의 향상은 학습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접해야 하는 사회과 지리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지리적 문제력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 생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것이다. 자신들이 생산한 디지털 스토리를 웹에 게시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지리적 상상력 및 학습 동기 또한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창조하고,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회과 지리 수업에 적용된다면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스토리: '스토리'는 '이야기'로 번역될 수 있으나 '이야기'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후 제시되는 '스토리텔링'과의 개념적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 대신 '스토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육신문 문화평

‘인간의 경계’에 대한 질문

장애의 역사(A Disability History, 2020)
김 닐슨 지음, 김승섭 옮김, 동아사이

『장애의 역사(A Disability History)』는 “장애를 렌즈 삼아 재배치한” 미국사(史)이다. 저자는 사학을 전공하고 현재 톨레도대학교에서 장애학 프로그램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김 닐슨이다. 저자는 미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미국다운 것(특히 ‘독립’이나 ‘자유’)의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이 곧 ‘미국인이 될 자격에 미달’하는 함의로서 장애 개념을 정의하는, 그리고 그 개념이 여러 형태로 변용되는 역사임을 주장한다. 이 작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의 개념은 시민권 불평등을 합

리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기에 그 개념은 고정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신체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변하는 역사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이전, 북아메리카 토착민 사회에서 장애는 개인의 신체를 근거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토착민들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재능(기술, 능력,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믿었고, 또 한 인간을 영혼과 몸, 그리고 정신의 조화 상태에 따라 판단했다. 그런 그들에게 장애는 신체에 결함이 있음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세 가지 항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공동체와 관계가 없거나 약할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식민지 초기 유럽인 공동체에서도 신체적인 장애는 노동능력에 따라 규정되었다. 즉, 누군가 어떤 식으로든 노동할 수 있다면, 신체의 다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당시의 용어로) ‘백치’나 ‘정신이상자’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동체가 개입했지만, 이 또한 가족이 그 사람을 돌볼 재정적 능력이 없을 때에 한해서였다.

그러나 훗날 보편화된, 억압을 ‘장애(=비정상성)’ 개념으로 합리화하는 몇 가지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17세기 초 매사추세츠에서 앤 허친슨과 메리 다이어라는 여성이 이단 재판에 회부되는데, 이는 그들이 직접 신학에 대한 토론을 주관하거나, 성직자를 거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하려 했고,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되려 했다.”고 그녀의 죄를 규정한 판사, 그리고 그들을 고소한 식민지 지도자 존 윈스롭은 허친슨과 다이어의 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그녀들의 ‘괴물 출산(Monstruous Birth)’ 경험을 들었다. 비정상적인 아이를 출산했음은 둘에게 임한 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허친슨은 과문을, 다이어는 반체제 인사로서 처형을 당하는데, 다이어는 식민지에서 교수형을 당한 첫 유럽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두 여성의 사례는 당대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 사례이다. 그러나 곧 정치·젠더·종교적 위계에 위협이 되는 신체를 억압하고 그 근거로 장애 개념을 활용하는 기제는 보편화된다. 한편으로 이 과정은 독립혁명 이후 남북전쟁, 그리고 ‘진보의 세기’를 거치며 객관화되는데, 정치·법·교육·의학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새롭게 형성된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올바르게 투표하고 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국인의 몸”을 규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백인) 여성·토착민·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 등을 ‘미달한 신체’로 분류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 장애 개념이다. 가령 ‘여성은 태생적으로 재생산과 두뇌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흑인 노예는 선천적으로 자기 역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로서 관리 받는 것이 축복이다.’ 등의, 지금으로서는 놀라운 주장들이 당대 우생학의 뒷

받침을 통해 ‘과학적 사실’로 통용되었다. 심지어 이상적인 미국인의 신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또 재생산되게 하기 위해 ‘이민 제한법’과 ‘강제 단종법(불임 수술)’이 법률로 제정되기도 했다.

그 외 격리 시설의 역사, 그리고 지금의 진전을 이끌어 낸 장애인운동단체의 저항운동을 여기에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장애 개념의 형태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장애는 가변적이고 또 역사적인 개념이며, 정치와 젠더 등 사회의 여러 범주를 가로지르며 상호작용한다. 즉 장애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 중 하나이다. 이 때 척도는 장애인(이라 불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고 다른 이들과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장애 개념은 역사적이기에 변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오래 축적되고 견고해진 이데올로기의 힘도 강하다. 지금 장애의 개념은 무엇이며,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장애의 역사』는 여전히 고등학교 특수학급(소위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설치에 진통이 뒤따르는 현재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교육자, 혹은 교육연구자라면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교육과 세계

이주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의 교육 현실

I 바깥로레아 계열의 세분화·위계화와 맞물린 68년 고등교육 “민주화”

2차 대전 후의 재건 기간인 소위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경제 호황기를 거치는 동안 프랑스의 교육 정책은 눈부신 변화를 겪었다. 1959년에는 16세까지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1963년 드골 정부가 학군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학군제도는 국가 전체에 교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학교당 학생 배정 및 교사 할당, 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 분배 등의 학교 운영을 용이하게 했다. 이런 제도가 중등교육 확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71년의 제1차 석유파동을 전후로 중등교육 과정이 ‘국립대학 vs 그랑제꼴’이라는 이원화 체계와 맞물려 개편된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성과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층 분화와 불평등을 확대하였는지가 드러난다. 가령, ‘국립대학 평준화’는 프랑스 68운동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되었지만, 이 개혁이 프랑스 고유의 국가 엘리트 양성 시스템인 그랑제꼴과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또한, 1968년 당시 바깥로레아 취득 비율은 약 20%, 1975년 당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약 7%로, 당시 전문직 종사자의 수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등교육 이원화의 부작용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학위의 희소 가치가 충분했고 전문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고등교육 학위를 소지하지 못한 구직자들에게도 경력을 통한 승진 및 이에 따른 계급상승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1968년을 기점으로는 중등교육 시스템도 개편된다. 바깥로레아 취득률 80%라는 목표하에 일반계 바깥로레아와 구별되는 기술계 및 실업계 바

깥로레아가 1968년과 1985년에 각각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1959년 10.5%에 불과했던 바깥로레아 학위 소지자들은 1985년부터 1995년 10년 사이에 30%에서 60%로 증가하였고, 현재 약 85%를 선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계 바깥로레아 취득률은 1995년에 3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40%로 학생수 증가에 비해 오르지 않고 있다. 실업계 바깥로레아 취득률이 1995년 7.9%에서 2016년 22.6%로 15% 가까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바깥로레아 취득률 증가에 기여한 학생들 중 대다수는 마그렘 출신 이주노동자의 2세이자 최초로 고등학교 진학 평준화를 통해 바깥로레아를 취득한 세대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깥로레아가 더 이상 계급 상승은 물론 취업을 보장할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1968년에 이루어진 국립대학 평준화와 맞물린 바깥로레아 계열의 다양화는 역설적이게도 고등교육을 지속할 의지나 능력이 보이는 학생들을 일찌감치 선별하고 격리하는 시스템으로 점차 변질되었다. 그 결과 계열이라는 차이를 서열화함으로써 학생의 향후 진로 및 직업의 선택지를 제한하게 된 것이다. 국립대학 평준화는 더 이상 고등교육 없이는 계급상승이 불가능해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I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과 학군제도 완화가 맞물린 학교 계도화 현상

바깥로레아 계열의 다양화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 공간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학교 계도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파리, 리옹, 릴과 같은 주요 도시 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동네와 근교 지역에 ‘신(新)중간계급’으로 불리는 학부모들이 다수 정착하

면서 촉발된 젠트리피케이션과도 궤도를 같이한다.

이들은 경제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대다수가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로 자녀 교육을 뒷받침할 만한 의지와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량실업, 계급추락의 위험을 목도한 이들은 집값이 저렴한 서민계급과 유색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네에 정착하는 한편,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을 벗어난 공립학교나 학비가 높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면서 특정 공립학교 기피 현상 및 학교 계도화 현상의 출현에 기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 개편과 함께 이루어졌다. 즉, 198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학군완화 및 특례입학 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명목하에 특정한 동네의 일부 학교에만 다국어반, 예체능반과 같은 특수반이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체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학교의 계도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에 60%의 중학생들이 학군 이외의 학교에 등록했다. 이렇듯 부유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동네와 학군의 경우 서민계급은 물론 중간계급과의 소셜믹스도 일어나지 않는 ‘자발적 계도화’ 현상이 뿌리 깊게 지속되고 있다.

I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프랑스의 교육 양극화

이처럼 세분화와 위계화를 거듭하는 중등교육 과정에 맞추어 고등교육 과정 역시 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랑제꼴 입시과정(CPGE: Classes préparatoires aux grandes écoles),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및 법과대학, IUT(단기 공과대학)처럼 향후 안정적

인 취업이 보장된 일부 학과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국립대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립대학 입학을 기피한다. 그랑제꼴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사립학교를 선호하면서 학자금 대출 시장, 사교육 시장 역시 확대되고 있다.

중상위계층 자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입학하는 고등사범학교가 보유한 교육 예산은 학생 한 명당 약 8천만원, 대표적인 그랑제꼴인 파리 정치대학의 경우 약 2천만원이다. 반면에 서민층, 유색인 이주노동자의 2세인 학생이 다수 입학하는 파리 8대학의 1인당 예산은 약 8백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민층의 자녀들, 그중에서도 프랑스 구 식민지 출신 유색인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다.

이처럼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교육의 평등을 보장하기는커녕 제도적으로 교육의 양극화에 기여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찰을 요구하는가? 교육 불평등을 통해 나타나는 학교 계도화 현상은 단지 학교 차원을 넘어 계급·계층 간 불평등 및 도시 공간에서의 인종 차별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에 정착한 1백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와 학교에서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경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주노동자의 2세들이 성인이 되어 대거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지금, 한국의 교육 체계는 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주거 공간과 계층, 인종 차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현상이 원인이 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뿌리내리지 않도록 이주노동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성찰해야 할 때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교육 현실이 한국 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공고하다. 이는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 방식 및 학생 인권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 나은 교육 및 성장환경을 자녀에게 마련해 주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소위 ‘서구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 핀란드 등의 교육 시스템이 지닌 장점들을 소개하는 대중 강연이나 서적, 대답들이 특정한 관점에서 구성된 현실을 일반론으로 소개하여 특정 계층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과장일까?

교육현장 노트



이솔비
국어교육전문

2020년 3월, 교육계에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개학을 연기하는 학교들이 속출했다. 연기된 기간 동안 나름의 대안들이 마련되었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완성도 높은 대안이 마련되지는 못했고, 결국 제대로 된 체계 없이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느라 큰 어

려움을 겪었던 시행착오의 나날이었다. 학교 현장을 휩쓴 이러한 혼돈은 교생 실습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활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생 실습 역시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역시나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협력학교 실습 기간 변경내역 안내’라는 글이 게시되었고, 혼란한 현장의 상황을 말해주듯 며칠에 한 번씩 그 내용이 업데이트되었다. 한 번에 2주 혹은 4주씩 실습 기간이 미루어졌고, 몇몇 학교는 실습 일정을 2-3번 반복하기도 하였다. 필자의 실습지였던 중학교는 2주 동안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4주로 예정되어 있던 실습이 반으로 줄어든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했듯 실습 학교 역시 학년별 등교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임해야 했다. 선생님이 녹화 영상을 올리면 학생들이 이를 듣고 ‘구글 설문’ 링크에 접속한 뒤, 형성평가 등의 간단한 점검 또는 숙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생 선생님들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과연 학생들이 서툰 교생의 수업, 그것도 녹화 수업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3차시 분량의 수업 영상을 제

출한 뒤 바로 실습이 종료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참여도 및 이해도를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 실습 기간이 조금 더 주어졌다면 설문 기능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직접 사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수업 플랫폼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단방형성의 인터넷 강의와 차별점을 보이는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쌍방향 수업이라 일컫기에는 부족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완벽히 지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생 쪽에서 먼저 교사에게 상호작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원만한 탐구 학습이나 협동 학습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는 모두 온라인 수업이 지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소통 플랫폼들은 원만한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능 개발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썸’ 모뎀별 원격토론을 가능케 하는 소회의실 기능을, ‘패드렛’은 접속자들 간 메모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멘티미터’는 실시간 투표 기능을 선보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기능 활용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플랫폼을 체험해보고 본인의 수업 방식에 적합한 기능을 활용한다면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점차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 온라인 수업이 주 수업 형태가 된 지도 어느덧 3학기 차에 접어들었다. 이제 시행착오의 시기는 끝났다. 플랫폼의 개발 및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에 버금가는 질 높은 온라인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합한 플랫폼을 채택하여 수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과 일방적 수업에만 익숙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예전의 대면 수업 방식으로 언제쯤 화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이 늦어진다면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길게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는 동안 교육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온라인 수업이 우리 교육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학교, 정부는 각자의 위치에 서 온라인 수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스승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어 사람으로 키우는 신동필 선생님

이번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한영고등학교 신동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학생에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학생들과의 인간적 만남을 학교 안팎에서 이어나가는 신동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동필
한영고등학교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31년째 재직중입니다. 그간 좋은 제자들과 함께함을 행운이라 생각하며 28년 연속으로 담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학생·동료교사·학부모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상을, 2020년 5월에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과 선생님들을 만난 행운으로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미래의 삶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큼니다. 따라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크게 의지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갖게 되면 교사는 원하는 교육활동을 만들어 가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1990년대 중반에 3학년 담임을 맡아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자율학습은 플래너를 활용하여 학습 상황을 관리하고 멘토들을 모집하여 함께 만든 문제로 평가를 실시하며 질문을 받아 이해를 돕는 등, 학생들에게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3학년 담임을 18년간 계속 맡아오며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날이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학급을 관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그 많은 교육활동에 함께해준 제자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오랜 기간 담임 보직과 특히 다년간 학년부장 보직을 맡으면서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주변 담임 선생님들에

게 상세히 알리고 참여를 권유해 왔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하고자 하셨지만 늘 학생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선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한다고 조언하곤 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 진심 어린 소통이 되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학생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께서 창립하신 동필장학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첫 3학년 담임으로 만난 제자들이 1996년 '한영고 DP 사단'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모임의 회원이 30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신년회와 망년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 모임의 의미를 보태보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후배들에게 동기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2016년 '동필장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장학회원이 구성되고 초창기에는 회원들이 100만원의 기금을 자발적으로 보냈습니다. 회비는 월 5천원으로 1년에 6만원이며, 회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120여 명에 이릅니다. 4회까지 24명의 장학생에게 1,1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급당 동기부여가 필요한 한 명의 학생을 담임 선생님이 추천하면 교무기획부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내신 3등급인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1등급으로 큰 성적 향상을 보여 주변의 큰 격려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필장학회가 학교 안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회원들은 수혜자인 장학생이 훗날 장학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장학금은 제가 수상한 대한민국 스승상 상금의 일부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멘토-멘티제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해 신입생이 된 제자들에게 멘토로 활동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자기주도 학습을 힘들어하는 학생을 상담을 통해 선발하고 멘토를 맺어 주어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자원한 멘토들이 두세 명의 후배들을 챙기게 되면서 멘티로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학급 학생 중에 삼분의 일 가량에 이르렀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은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일주일에 두 번씩 비어 있는 교실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교과에 대한 학습 상황 확인과 학습 중에 도움이 필요했던 내용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주요 교과는 별도 교재를 통한 학습 지도와 격려를 통한 정신



적인 지원까지도 제공했습니다. 멘티 중에 일부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며 희망 대학에 진학하고 스스로 멘토가 되어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챙겼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험생활을 마친 선배는 수험생에게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선배와 후배의 결속이 다져졌습니다. 멘토-멘티제에서 활동했던 학생들이 장학회에서 함께하고 있어 여러 모로 의미가 큼니다.

저술하신 역사소설 『창업』의 집필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단 모임이 장학회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은 선생인 제가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논의 중에 한국사 수업에서 제가 늘 발표 수업 주제로 삼았던 '역사의 라이벌'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발표와 토론 수업을 하면서 정몽주와 이방원, 정도전의 선택이 개인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 중 누가 옳았는지를 주제로 다룹니다. 수업 말미에는 제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다가왔던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려주었습니다. 정도전은 제가 한국사를 처음 접하면서부터 특별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백성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여 새로운 나라를 열었던 혁명가인 그의 삶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회를 만들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정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 30년이 되는 해에 책을 출간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시간을 쪼개서 사료를 정리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집필한 원고는 2년 동안 다듬고 고쳤습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제자들과의 약속이란 생각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에 관한 역사소설 『창업』이 2020년 3월에 출간되어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제자들에게 선

물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머물고 점심시간 중 30분도 내어주며 학생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수업 준비는 인터넷 강의나 교육 방송을 접하면서 매년 새롭게 챙겼습니다. 플래너 활용을 강조하며 매주 학생들의 플래너를 두 번씩 확인했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매주 두 번씩 쪽지 시험을 보고 노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 3학년 담임을 계속할 때는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1회 단합 축구 대회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자리하면 공유하는 저에 대한 기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제 모습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담임으로서 만난 학생이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새삼 확인합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21세기 한국 중등교육의 주춧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온 선배, 동료, 후배 교사 중에 고려대학교 출신이 유독 많아 함께 고민하고 큰 도움과 격려를 나누며 교육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사회인이 된 제자들이 종종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말해주곤 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학교현장 탐방

'국제경영중점과정'으로 세상을 향한 학생들의 시각을 넓혀 주는 도림고등학교



양대광
도림고등학교 교사

국제경영중점과정의
장점 중 하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진취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요소인
'창조적 파괴'와 '도전 정신'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도림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림고등학교에서 국제인문부와 국제경영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 양대광입니다. 도림고등학교는 2004년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개교한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9년 전 처음 이곳으로 전근을 왔을 당시, 농지와 공단, 화원(花園)으로 둘러싸인 본교의 독특한 모습은 마치 제계 도시 속 농촌학교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도림초등학교가 사용하던 50년 넘는 건물을 물려받아 사용하다 보니,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변 학교에 비해 선호도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학생들은 순수하고 소박했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소 침체된 느낌의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 지정 국제경영중점과정, 교육부 지정 창업체험교육 선도학교, 유네스코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비즈쿨 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림고등학교는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림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림고등학교는 덕성인, 지성인, 건강인, 실력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 정직한 행동, 앞서는 실력'이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90여 개에 달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지만 내실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진로 집중 과정, 꿈두레

교육과정(학교 간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경영중점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일반 고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국제법',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국제정치', '국제경제'에 이르는 국제계열 교과는 물론, '실용경제', '경제', '기업가 정신', '생활과 창의성', '지식재산일반' 등의 경제 관련 교과도 교육과정에 고루 포함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왔습니다.

현재 도림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경영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림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국제경영중점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1학년 2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영중점과정의 기조는 'Dream in Dorim, Move the World'입니다. '도림에서 꿈을 꾸고 세상을 움직이자'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국제역량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현립 카이타 고등학교와의 국제 교류 활동, 유네스코 학교 관련 SDGs 활동, 원어민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교실, 국제 문화 페스티벌과 같은 국제 관련 활동은 물론, 기업가 정신 특강, 사회적 경제 캠프, 사회과학 아카데미, 비즈쿨 학교, 창업 체험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경영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한 학생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험한 만큼 꿈꾸고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와대 방문, 외교부 견학 및 외교관과의 대화, 기획 재정부 견학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조금 더 넓고 큰 세상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진취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국제경영중점과정의 핵심 요소인 '창조적 파괴'와 '도전 정신'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비즈쿨 페스티벌 창업동아리 수기 공모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인천 비즈톤 대회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의 성과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



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적이나 서류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의욕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학급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넷째, 학교의 이미지 제고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열악하고 특색 없는 학교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미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본교의 국제경영중점과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대구의 한 여고로부터 교사단이 방문하였고, 외에도 각지의 여러 학교가 교육활동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사의 수고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교사의 수업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과 교사들은 다교과 수업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교의 사회과 교사(일반사회, 역사, 지리, 윤리)들은 평균 3.5개의 교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교외 활동까지 더해져 인술, 출장 등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도 타 교과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한편,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사전 협의가 필요했는데, 이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학생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를 준비하고 배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타교과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때, 학교 구성원들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경영중점과정이 뿌리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제경영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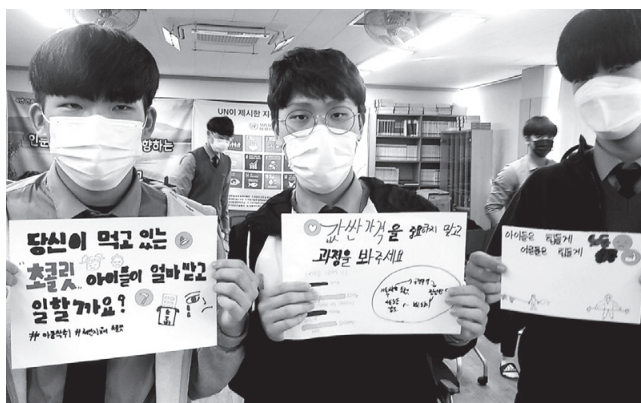
운영 첫해였던 2018년에는 총 40명 정원 중 30%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 충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2020년이 되면서 100% 이상의 지원율을 보여 모집에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원율의 변화야말로 국제경영중점과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교로부터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송도 지역에서도 국제경영중점과정 관련 문의가 늘고 있고, 실제로 이 지역 학생들도 꾸준히 입학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경영중점과정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게 되어 앞으로 본 과정은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참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일련의 과정과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빛을 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는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들지언정 그런 방송들이 주는 메시지의 울림은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리사가 고생하고 신경 쓸수록 음식을 먹는 고객들은 양질의 음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해당 방송들이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학교 또한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고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또한 맛깔나게 요리하는 멋진 선생님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

▲ 가정교육전공

장은영 한국 성인의 비타민C 섭취와 비만의 연관성 -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정성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등 가정 교과 의생활 메이커교육 교수 학습과정안 개발

▲ 간호교육전공

김문숙 클라리세이지 및 리나릴 아세테이트 향흡입이 항암치료 전 환자의 불안 및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효과

이민정 여성 원발성 중복암 생존자와 단일암 생존자의 적응 경험 비교

▲ 교육방법전공

김가민 고등학생의 디지털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백승연 초등학교 과학수업에서 실험 영상 자료를 활용한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질적 연구

이현정 원격수업에서 피드백 제시 매체와 유형에 따른 교과흥미도, 교수실재감 및 학업성취도 차이 연구

이지용 학점중심과정

홍진아 학점중심과정

▲ 교육정보전공

김재홍 고등학교 정보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 기반한 교과서 분석

손연주 실시간 언택트 교육에 대한 기업 교육 수혜자들의 인식 및 선호도 연구

▲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김수영 교육 분야 사회공헌 사업의 운영 방안 연구 - H재단 온드림스쿨 초등학교 사업을 중심으로 -

문성지 특수교사의 근무환경과 정체성이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주형 COVID-19 대응 원격수업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 연구

양승희 코로나19 대응 교육정책에 대한 초등학교원의 인식 분석

▲ 국어교육전공

권아름 분단소설 교육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가영 중등예비교사가 개발한 창의·인성 독서 프로그램 분석 연구

방혁 오광대·야류 할미과장의 구조 및 주제의식

선여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전 운문 문항 분석 연구 - 2016 ~ 2020학년도를 대상으로 -

이시원 국어과 고전 교육과정 체계연구 - 해외 고전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요나 문학 교과서 수록 고전시가 '학습활동' 분석 - <비상교육>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

한송희 협상 담화 교육 연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

한혜령 2015 개정 문학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연구 - 2009 개정 문학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수빈 학점중심과정

박다영 학점중심과정

박예슬 학점중심과정

이지영 학점중심과정

이지현 학점중심과정

정주희 학점중심과정

최예락 학점중심과정

한민혜 학점중심과정

허다인 학점중심과정

▲ 기업교육전공

고진아 화학·바이오산업에서 혁신지향 조직문화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지식공유의 매개효과

오지민 외식업 조직구성원의 경력개발 지원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세대별 비교연구 - 밀레니얼세대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

이택종 H사의 상시학습 제도와 관리자의 코칭행동이 학습조직 구축정도에 미치는 영향

임신혜 자동차산업 사무직 근로자의 학습민첩성과 조직변화몰입의 관계

정우영 수도권 제조업 분야 기업 관리자의 개발리더십과 직무열의와의 관계

홍성임 금융기업 리더 성별에 따른 구성원이 인식한 변혁적 리더십과 정서적 몰입과의 관계

▲ 도덕·윤리교육전공

김서현 학점중심과정

최정윤 학점중심과정

▲ 미술교육전공

김규원 비대면 온라인 미술수업 지도 방안 연구; 무의식에 기반한 창의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 초현실주의 기법을 중심으로

김한솔 시각적 문해력 신장을 위한 감상 수업 실행 연구

유희은 노인을 위한 친환경 미술재료 연구 - 전통기법을 중심으로 -

이지연 미술과 역사의 융합교육을 위한 수업모형 연구 - '미술감상과 비평'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의 이해 -

최민지 비전공자들의 주체적 감상을 위한 풍자화 감상수업 실행연구 - 펠드만의 미술비평단계를 기반으로 -

권민석 학점중심과정

문선혜 학점중심과정

박경아 학점중심과정

박수민 학점중심과정

박수인 학점중심과정

조은솔 학점중심과정

▲ 상담심리교육전공

경규희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의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권민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자본과 진로장벽 관계에서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 효과

김나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도·지원

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김양경 반려견 소유자의 반려견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남지원 특수교사의 자기돌봄 저해요인 - 자기불일치와 죄책감을 중심으로 -

손희경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무소진 연구 - 감정노동, 직무요구, 긍정심리자본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

윤정경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소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전예림 성인 사이버폭력 경험, 청소년기 학교폭력경험, 외상 경험에 따른 군집 유형과 심리적증상, 사회적 지지, 내현적 수치심에서의 차이

최영혜 부모지지와 진로정체감의 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김윤경 학점중심과정

김윤성 학점중심과정

김진경 학점중심과정

김효은 학점중심과정

박윤주 학점중심과정

송보미 학점중심과정

조은애 학점중심과정

조현진 학점중심과정

최선옥 학점중심과정

▲ 생물교육전공

구민정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생명과학Ⅰ 교과서의 유전 단원에 대한 비교 분석 - 교과서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 교재에 사용된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

반새롬 STS(Science-Technology-Society) 관점에 의거한 2015 개정 생명과학2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활동 분석

백승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과학, 생명과학Ⅱ, 고급 생명과학 교과서와 대학 일반 생물학 교재 연계성 분석 - 유전자 발현 단원을 중심으로 -

▲ 수학교육전공

양경필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 - 프로젝트 수업, 자기조절 학습을 중심으로 -

이건민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입체도형 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반응 분석 - 피라미드 홀로그램을 중심으로 -

강지영 학점중심과정

권예주 학점중심과정

김우균 학점중심과정

김형진 학점중심과정

김혜진 학점중심과정

박효민 학점중심과정

양혁진 학점중심과정

유덕주 학점중심과정

유시은 학점중심과정

이광희 학점중심과정

이규정 학점중심과정

이승현 학점중심과정

이예지 학점중심과정

이정은 학점중심과정

주한나 학점중심과정

▲ 역사교육전공

김현경 누리과정(만3~5세)에서의 역사 교육 향상

정명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등 역사 교과서의 백제사 서술 검토 - 계열화와 쟁점을 중심으로 -

홍석진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교과서의 淸史 관련 서술 검토 - '최근 淸史 연구'를 기반으로 -

▲ 영어교육전공

권기범 크로스오버 영어 그림책에 나타나는 동서양의 시각적 수사학 차이 비교분석 연구

김경임 영어과 중등임용시험의 유용도 분석: 2018~2020학년도를 중심으로

김연경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디즈니 작품의 시대적 변용과 한국 청소년의 인식 연구 - <Aladdin> 및 <Toy Story> 속 여성 캐릭터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김효미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동물 신랑 주제 동화의 문화적 비교 - 『해의 동쪽 달의 서쪽』, 『미녀와 야수』, 『구렁덩덩신선비』를 중심으로 -

박세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상태동사와 형용사 진행상 습득 연구

백진희 크리티컬 리터러시를 활용한 To Kill a Mockingbird 읽기교육 - 고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전공에 따른 반응을 중심으로 -

오윤지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영어 내신 성적 관련 예측 요인 탐색

유혜린 독자 반응 이론을 활용한 그래픽 노블 읽기가 어휘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정하 Test Usefulness of Literature Items in the Employment Exams for Secondary English Teachers from the School Years of 2014 to 2020

조지은 『시계태엽 오렌지』에 나타난 공적 폭력

한주연 메타픽션 장치를 활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활용이 영어말하기에 미치는 영향

한진경 국내외 Critical Pedagogy, Critical Thinking 관련 EFL 연구 비평적 분석

강수민 학점중심과정

강지윤 학점중심과정

권택준 학점중심과정

김후정 학점중심과정

민송이 학점중심과정

박소영 학점중심과정

유승효 학점중심과정

▲ 영재및특수교육전공

정진솔 기능 분석을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교육전공

김지은 학점중심과정

▲ 일반사회교육

이고운 학점중심과정

▲ 지구과학교육전공

김중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과학 논증 분석

▲ 지리교육전공

김서현 텍스트 마이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한국지리 교과서의 내용 분석 - "국토의 위치와 영토문제"단원을 중심으로 -

▲ 체육교육전공

김가람 스키장 안전 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김덕용 프로야구 관중의 경기장 응원 인식 및 관람 행동 분석에 따른 마케팅적 함의

정미송 배스 루어낚시 여가 갈등 이해 및 바람직한 여가 활동으로의 방향성 탐구

최현진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 사례연구 - 중학교 정규교육과정 학교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

김경호 학점중심과정

김국희 학점중심과정

방극열 학점중심과정

유성광 학점중심과정

이학선 학점중심과정

임가영 학점중심과정

최성령 학점중심과정

허한덕 학점중심과정

▲ 컴퓨터교육전공

권샘물 학점중심과정

손동일 학점중심과정

신정섭 학점중심과정

천현선 학점중심과정

▲ 평생교육전공

김명희 직업상담사의 프로티언 경력태도 및 지속학습활동과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

황다솜 사회문화적 관점의 셀프리더십과 변화몰입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의 매개효과

김효숙 학점중심과정

정하용 학점중심과정

▲ 한국어교육전공

김현주 언어유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

이희원 의료기관 이용 과제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교육 요구도 분석

김보미 학점중심과정

이소영 학점중심과정

전화경 학점중심과정

▲ 한문교육전공

이현주 한문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수업 적용을 중심으로 -